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새단장

문방사우 주제로 한 인터랙티브 체험공간 ‘참방참방 획획’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문방사우를 주제로 어린이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에 따르면 5일 문을 연 어린이박물관 ‘참방참방 획획’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문방사우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벼루, 붓, 먹, 종이 놀이터와, 36개월 미만 영유아 전용 공간인 연적 놀이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서예문화를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는 문방사우에 대해 놀며 알아가는 아날로그 체험과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디지털 체험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리릭 붓 놀이터〉, 〈까망까망 먹물 놀이터〉, 〈뽕송뽕송 종이 놀이터〉에는 붓, 먹, 벼루, 종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날로그 체험을 준비했다. 이곳에서는 문방사우를 이용해 나만의 글씨나 그림을 표현할 수 있고, 문방사우의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며 무형유산 장인이 제작한 문방사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참방참방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참방참방

뛰어 놀 수 있는 디지털 벼루와 내가 ‘붓’이 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종이 교차되는 반응형 인터랙티브 체험공간이다. 또 디지털 서예 붓을 이용해 대형 LED 미디어월 속 디지털 책가도에 나의 바람과 소망을 표현할 수 있다.

〈풍드랑 풍드랑 연적 놀이터〉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영유아 전용 공간이다. 연적 모양에 나타나는 오리, 두꺼비, 물고기 등이 사는 연못을 주제로 대근육과 소근육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서예문화를 주요 콘텐츠로 소개하는 국립전주박물관의 특성에 맞춰 문방사우를 주제로 했다. 주 관람층인 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발달단계에 맞춰 영역별로 누리과정과 연계해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개인 관람객은 별도 예약 없이 현장 입장 가능하나,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어린이박물관 관람은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박물관 ‘참방참방 획획’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발달 장애인 대상 ‘행복한 좋은이웃 발표회’ 개최

한국드림문화재단 ·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좋은이웃, 공연 · 전시 등 진행

한국드림문화재단(이사장 엄운숙)은 오는 6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인 좋은이웃(센터장 경은숙)과 함께 ‘행복한 좋은이웃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이 준비한 앙상블, 합주, 카혼, 난타, 춤바, 국악 등 다양한 공연과 미술작품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한국드림문화재단은 소외계층과 발달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과 심리상담 외 다양한 후원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올해도 좋은이웃에 매주 방문해 발달 장애인들에게 미술 치료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뛰어넘는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엄운숙 이사장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내 모두가 장애라는 장벽

을 뛰어넘어 문화예술인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받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인 좋은이웃은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발달 장애인 지원사업 유공 표창을 받아 오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11일 ‘남원별곡: 소리로 물들이다’ 공연

남원시립국악단은 오는 11일 저녁 7시 30분,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창작국악 관현악 ‘남원별곡: 소리로 물들이다’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남원의 역사, 자연, 문화 등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창작 국악 관현악곡으로 제작한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국악관현악 곡에 판소리 합창, 무용을 더해 풍성한 무대를 준비했으며, 8세 이상 무료로 남원시립국악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첫 번째 △피어나는(작곡 이정호) 곡은 수채화처럼 그려낸 지리산의 절경을 표현한 곡이고, 두 번째 △남원에가(작곡 최지혜) 곡은 춘향전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춘향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별의 절절함을 판소리 평조로 나타냈으며, 어사출두 부분은 자진모리장단과 함께 피날레로 이어져 사랑을 맺는다.

세 번째 △무용곡 요천(작곡 임교민 안무 김동훈) 곡은 남원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천의 이야기를 국악관현악 풀었으며 생동감 넘치는 인무를 더 해 완성도를 높였으

며 △춘향이야기(작곡 김백찬)는 판소리 춘향가의 눈대목 중 멜로디를 차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판소리 합창곡 피어나다 남원(작곡 김백찬)은 판소리 풍의 멜로디로 남원의 역사, 자연, 문화 등을 소개하는 노래 곡으로 남원의 풍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마지막 무대는 프로그래시브 록밴드 동양고주파와 협업, 강렬한 사운드로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며 평화를 기원하는 ‘사이클’(작·편곡 윤은화)과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오프닝 곡으로 알려진 ‘짜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편곡 이창희)를 연주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평화박물관, ‘안녕! 하제’ 특별전시

11일까지 하제마을 팽나무 천연기념물 등재 기념 특별전

군산평화박물관(동국사길 3)은 4일부터 11일까지 ‘안녕! 하제’ 특별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2018년 진행한 ‘안녕! 하제’의 앙코르 전시로 지난 10월 31일 하제마을 팽나무의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등재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안녕! 하제’ 전시에서는 하제마을이 국방부에 편입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며 마을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이재각 작가의 사진을 다시 볼 수 있다. 또 하제마을 주민들이 제공한 기록을 담은 사진영상을 통해 과거 하제마을의 모습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018년 ‘안녕! 하제’ 전시는 미군기지로 인해 강제 토지 수용 및 강제 이주를 당한 하제마을 상환과 팽나무를 군산시민들에게 알렸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은 팽나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팽나무는 2021년 6월 전라북도문화재 지정을 거쳐 드디어 올해 천연기념물에 등재됐다.

하지만 팽나무가 있는 하제마을은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공여를 요구하고 있는 곳으로 팽나무 보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국방부는 지난 11월 7일 하제에 남아있던 마지막 2가구 중 1가구를 행정집행을 통해 강제철



거했고, 이후 남은 1가구도 강제철거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제마을이 미군기지에 편입되고 철조망이 담판다면 팽나무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전시 행사로 11일 저녁 7시, 하제마을 팽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군산 시민들과 함께 ‘하제마을 팽나무 보존 방향 수립을 위한 좌담회’를 연다. /김옥기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일 · 생활균형 문화확산 사업보고회 열려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5일 ‘2024년 일 · 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보고회에서는 일 · 생활균형 유관기관 전문가 및 협의체 위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단에 따르면 ‘일 · 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은 위라밸 실천과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해 지자체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일 · 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일 · 생활균형 네트워크 구축 △일 · 생활균형 도민홍보 등 세 가

지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 수당지원 △매월 마지막 주 금 위라밸 주간행사 등을 운영함으로써 일 · 생활균형 제도 사용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일 · 생활균형 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을 통한 추가 인증기업 발굴(42개소) △사업주 대상 고용부 기업지원 정책활용 컨설팅 △위강맘 · 대대위라밸 가족학교(10가동) △미래를 앞당기는 일 · 생활균형 선도기업 경진대회(5개소)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할인혜택) 협약(25개소) 등 기업의 일터 혁신과 도민의 일 · 생활균형 문화 인식개선의 성과를 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김해문화관광재단 협약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지난 4일 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와 예술 분야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확산을 이루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 앞서 지난달 1일과 2일, 전주문화재단의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이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2025년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의 공연이 전주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공동기획 △사업추진 및 홍보 △지역별 교류 공연 개최 △교류공연 결과 공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